

설교 전의 나의 묵상

옥 성 석

(서울 충정교회 담임 목사)

설교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아픈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의 설교는 어떤 형태인가?

C. Reid는 위기에 직면한 설교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 1) 설교자가 사용하는 말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이다.
- 2) 설교가 싫증이 나고, 지루하며, 재미가 없다.
- 3) 설교가 듣는 사람의 삶과 무관하다.
- 4) 설교가 과감하지 못하다.
- 5)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 6) 설교가 상호 전달이 안 된다.
- 7) 교회에서 설교가 너무 강조되고 있다.

1.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한다

단 아래 앉아 있는 청중들보다 더 소중히 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계신다.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만일 내가 설교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잊지만 않는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R. Bohren “설교자는 이 첫째가 되는 청중(하나님)을 얻을 때 다른 청중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이 자유 가운데서만 설교자는 힘을 얻는다. 한편 설교의 무력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망각하는 데서 온다. 반면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말하게 될 때 그 말은 청중들에게 잘 들려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첫째 청중이신 하나님 때문에 설교자는 그 말은 기능을 확실하게 수행하게 된다.”

2. 나는 또한 사람을 향하여 설교를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서 있다면 나는 사람 앞에서 행위의 인격으로 서 있다. 설교자의 인격은 말로 전파되는 설교에 나타나지 않고, 행위로 증거되는 설교에 나타난다.

J. Poulton—"설교자 자신이 곧 그들의 메시지이다. 설교자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의사 소통이란 기본적으로 인격적 진실성이다."

R. Baxter—"설교와 일상 생활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목사들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실수는 그들이 설교하기 위해서는 빈틈없이 준비하고 연구하지만 그 설교대로 빈틈없이 살기 위해서는 조금도 노력하거나 연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잘 하기 위하여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것인가에 관하여도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

3. 설교자로서 나의 최대 과제는 예수의 인격을 닮아 가는 것이다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물론 설교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끊임없이 예수의 인격을 닮아 가는 것이다. 설교는 결코 '명예로운 야망 (glorition ambition)'을 위한 방편도 '거룩한 성공' (holy success)'을 위한 도구도, '성화된 실용주의 (conserated pragmatism)'를 위한 수단도 아니다. 설교는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 보증도,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성공 요인도 아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생생한 전달이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자 자신의 '축적된 신앙과 그 인격, 생활의 총체적인 조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를 위한 테크닉이 아니라, 설교할 수 있는 인격이다. 그 인격의 모델은 바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4. 결론은 오직 예수만 남도록 하라

모든 것(성경, 일반 책, 대화, 대자연)에서 설교를 보며, 본문의 깊은 사상적 흐름을 파악하고, 중심 사상을 따라 내용을 전개하되 결론은 오직 예수만 남도록 하라.